

보도 일시	2022. 12. 22.(목) 배포 시	배포 일시	2022. 12. 22.(목)
담당 부서 <총괄>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책임자	과 장 정재환(044-201-2331)
		담당자	사무관 신소연(044-201-2342)

한국 젖소 101마리 네팔로 출발! 낙농,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공여국으로

- 22일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헤퍼코리아, 기증·후원자 등과
젖소를 네팔에 보내는 첫날 기념 환송식 개최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민간 국제개발단체 헤퍼코리아(Heifer Korea, 대표 이혜원)와 함께 한국 젖소 101마리를 네팔에 보내는 첫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2월 22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환송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환송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참석하였고, 과거 헤퍼로부터 젖소 2마리를 기증 받아 현재까지 젖소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낙농가인 수혜자와 낙농조합 등 기증자, 후원자 등과 함께하여 뜻깊은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지원은 불과 50여 년 전 젖소 1마리당 하루 우유 생산량이 10리터도 안되던 나라에서 마리당 우유 생산량 33리터, 세계 5위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에서 젖소 및 유전자원을 지원하고 전문관리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헤퍼코리아가 함께 추진하였다. 이번 사업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에서는 네팔 정부와 생우 위생조건에 대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하여 검역 지원 체계를 마련(2021.6월~2022.11월)

하였다. 또한 분야별 축산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조사단을 꾸려 현지 낙농 기반(인프라) 및 사양관리 전반을 진단(2022.6월)하였으며, 국내 젖소 및 유전자원 선별 및 이동 지원, 젖소의 현지 적응을 도울 사료, 미네랄제제 등 첨가제 지원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국의 젖소 생우와 씨수소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네팔로의 운송을 위해 이달 5일부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검역 시행장에서 기본 검진, 백신 접종 등 출국 준비를 마쳤다. 22일 젖소 42마리를 네팔로 운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공수정용 정액, 사료 등과 함께 23일부터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운송된다. 아울러 내년 1월 중에는 젖소 종모우(씨수소) 2마리를 운송하여 네팔 내에서의 유전적 개량을 위한 정액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국제 사회와 헤퍼의 지원*이 축산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다. 1969년에는 독일에서 차관을 들여 젖소를 도입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의 전신인 국립종축장 조직과 현재의 안성팜랜드 자리에 한독낙농시범목장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현대식 낙농업의 출발점이자 체계적인 낙농산업의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부터 1976년까지 헤퍼인터내셔널(Heifer International)에서 총 44회에 걸쳐 우리나라에 젖소 897마리, 황소 58마리, 염소, 돼지, 닭 등 3,200마리의 가축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150만 마리의 꼴벌을 지원받음

이날 환송식에는 과거 헤퍼가 한국에 도움을 줄 당시 수혜자이자, 이번 젖소 보내기 사업에 젖소를 기증한 이재복 대표*(이재복 목장)도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 1969년과 1972년 헤퍼로부터 받은 젖소 두 마리로 축산업을 시작, 현재 이재복 젖소 목장을 운영 중

네팔은 전국에 약 750만 마리의 젓소가 사육되고 있고, 낙농업은 국내총생산(GDP)의 9%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매년 우유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젓소의 연간 마리당 산유량은 우리나라 젓소 산유량의 1/3 수준*이다. 네팔 정부에서는 우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도(2010년), 중국(2018년)으로부터의 젓소 수입을 시도하였으나 관련 법률, 고가의 비용, 장기간의 과정 등의 사유로 도입에 실패한 바가 있다. 이에 우수한 젓소 유전자원을 보유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 네팔 젓소의 연간 마리당 산유량은 880kg, 교배 개량종(홀스타인/저지)은 3,000kg, 우리나라 젓소 산유량은 9,000~10,000kg 수준

네팔을 대표하여 참석한 네팔관광청 한국사무소 케이피 시토올라(KrishnaPrasadSitoula) 소장은 이번 지원을 성사시킨 한국 정부와 헤퍼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젓소를 기증해준 목장 대표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아울러 네팔 정부에서는 우리 젓소의 네팔(카트만두 공항) 도착에 맞춰 네팔 농림부차관, 주네팔 한국대사, 헤퍼네팔 대표 등이 참석하는 환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운송되는 젓소는 네팔에 도착한 후 2~3일간의 격리기간을 거쳐 네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들리 지구(카트만두에서 남동쪽으로 약 150km 거리) 시범낙농마을 50농가에 차례로 분배될 예정이다. 이들 농가들은 헤퍼, 지방정부와 함께 비용을 분담하여 축사를 신축하고 한국에서 오는 젓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젓소를 받은 농가는 한국에서 건너간 유전자원에서 맨 먼저 태어난 암컷 새끼와 함께 전수 받은 기술과 지식을 이웃 농가에 전수하는 방식(헤퍼의 Passing on the Gift 사업 모델)으로 지역 내 3백 가구까지 젓소 사육을 확대하여 ‘가축 한 마리로 시작하는 경제적 자립’을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단순히 젓소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네팔 낙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젓소를 사육하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의 국제협력사업(ODA)을 통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체계적으로 농장의 사양·질병 관리를 위해 현장형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한국의 인공수정·사양관리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젓소 개체별 식별번호(ID)를 부여한 후 모바일앱을 통해 집계한 산유량, 사료량 등 데이터를 점검하여 사양관리에 활용한다. 젓소분뇨를 주방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 가정별 소규모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잔여 바이오슬러리는 자연비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 낙농활동을 지원한다. 네팔에서 희망할 경우 국내 젓소농장에 네팔의 근로자가 사육기술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2년 전 작고하신 선친이 1969년 당시 성환 국립종축장에 재직하시며 독일에서 차관으로 도입한 젓소 사육을 담당하셨는데, 오늘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젓소 유전자원과 낙농기술력이 네팔에 전달된다면, 국가차원에서 낙농업 부흥에 고심 중인 네팔 정부와 자라나는 네팔 어린이들의 영양증진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단순한 젓소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2년간의 국제협력사업(ODA) 등 후속 활동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젓소 유전자원과 낙농 기술력이 네팔 낙농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양국 우호 증진의 발판이 되길 기원하고, 네팔 국민, 특히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새해 선물이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관련 사진

2. 네팔로 젓소 보내기 사업 개요
3. 네팔로 보내는 젓소 운송 일정 등
4. 네팔 젓소 사양관리를 위한 후속 ODA 사업(KOICA)
5. 헤퍼(Heifer) 코리아 소개

□ 70여년전 헤퍼인터내셔널(미국)에서 한국에 구호가축을 보내줄 때 비행기 앞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오늘 환송식 사진



1952년 시카고, 산란계 종란 운송
*헤퍼 프로젝트 쉐 메츠거 사무총장, UN 빌 라이에, UN한국대표부 임병직 대사



1954년 LA, 염소, 별통 등 운송
*헤퍼 프로젝트 서부분부장 미틴 스트레이트, 러셀 존슨 등



왼쪽부터 이혜원 해퍼코리아 대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재복 이재복목장 대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케이피 시토올라(KrishnaPrasadSitoula) 네팔관광청 한국사무소장

- 네팔 신둘리(Sindhuli) 지구 시범낙농마을 농민들이 헤쳐, 지방정부와 함께 비용을 분담하여 마련한 신축 우사(운송된 젖소 사육 예정)



전통 우사



신축 우사

□ 추진 목적

- 한국형 젖소 및 유전자원(종모우, 정액) 지원을 통해 네팔 낙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적 수준의 가축 및 유질 관리 지식 및 기술 공유

□ 추진 경과 및 진행 사항

- 네팔 정부와 생우 및 정액의 위생조건에 대한 협약을 진행하고 양국 간 해외 반출 검역 및 통관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농식품부, '21.6월~'22.11월)
- 네팔 정부* 및 헤퍼네팔과 지원 농가, 방식 등 세부 사업 내용 확정(헤퍼코리아, '21.1월~'22.11월)
 - * 농림축산개발부, 국립가축개량센터, 카말라마이 지방정부, 낙농개발공사, 낙농개발위원회 등
 - 네팔 정부 관계자, 낙농 이해관계자 등과의 업무 협의('21.12월)
- 국내 분야별 축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현지 낙농 인프라(신설 축사 등) 및 사양관리 전반을 진단('22.6월)
 -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낙농가, 서울우유, 사양전문가, 헤퍼 관계자 등으로 구성
- 대국민 크라우드 펀딩, 유산 후원, 목장 후원, 기관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추진 기금 마련(헤퍼코리아, '21.4월~'22.11월)
 - 젖소 암소(101마리), 종모우(2마리), 인공수정용 정액(2천str)은 기증과 매입을 통해 확보
 - 미네랄, 비타민, TMR·농후사료, 백신 등은 기증을 통해 확보하고 운송 과정 및 젖소의 현지 적응을 위해 지원
- 생우 항공 수송을 위한 특별 전세기(아시아나 A350)비용 지원(헤퍼인터내셔널)
- 지원 대상우는 검역시행장(화성)으로 이동하여 검역(질병 및 임상검사) 진행 ('22.12.6~28, 농림축산검역본부)

- 인천공항에서 선적 후 네팔(카트만두 공항 등)로 4회에 걸쳐 운송(12.22~28)
 - 첫 번째 선적 시 인천공항에서 환송식 개최,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서 환영식 예정('22.12.22)
 - * (인천 환송식) 농식품부 장관, 네팔관광청 한국사무소장, 농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지주 대표, 헤퍼코리아 대표, 기증축협낙협 조합장, 평택축협, 천안공주낙협, 수원축협, 인천축협, 과거 헤퍼 가축구호 수혜자가증자(이재복 대표), 젓소 기부 목장주(순흥목장, 이사돌목장, 임마뉴엘목장), 후원자 등
 - * (네팔 환영식) 헤퍼본사 CEO, 수혜농민/협동조합, 언론, 농림축산개발부, 대한민국 대사관 등 참여
 - 젓소 수송 중 상시 건강 체크 및 긴급 대응을 위한 전문수의사 네팔 동행
- 운송된 젓소는 격리(2~3일)를 거쳐 신돌리 지구 카말라마이시 시범낙농마을 (50가구 예정)에 분배
- 정액생산에 활용할 종모우(2두)는 네팔 국립가축번식원(National Livestock Breeding Office)으로 운송('23.1월중)
- ODA사업(KOICA)으로 지역 소농의 생계소득 향상과 현지 낙농업 발전을 위한 후속 인프라 구축 및 그린·디지털 기술협력 수행 예정('23~'24)
 - * 농업현장학교, 조직 형성 등을 통한 사양관리 역량 강화, 국내 사양관리·인공수정 전문가 파견, 개체별 ID 부여 및 모바일앱을 통한 사양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등

□ 기대 효과

- **(한국)** 한국의 생우가 해외로 가는 첫 사례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 낙농산업 우수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시장개척의 기회
 - 양국 간 민-관 상생 번영의 파트너십 협력 기반을 마련해 향후 연계 산업의 진출, 기술 협력, 인적 교류, 공동 연구 등으로 확장 기대
- **(네팔)** 농가는 가축 사육을 통해 생계소득을 창출하고, 소농(여성) 중심의 협동조합 구축을 통해 낙농 가치사슬 강화
 - 정부는 국가 낙농업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젓소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 영양의 기본 요소인 우유 및 유제품 자생적 보급 기틀 마련

□ **젓소 항공운송 세부일정(1~4차)**

운송일		항공편	비행시간	무게	두수	비고
1차	12.22(목)	아시아나 OZ7653	12:30~17:00 (4시간 30분)	20톤 (젓소 10, 사료 10)	42	A350 전세기를 개조해 한시적으로 화물기로 운영
2차	12.23(금)	대한항공 KE695	13:30~18:05 (4시간 35분)	4.8톤 (젓소)	20	운송기 여건에 따라 1두 추가
3차	12.25(일)		13:30~18:05 (4시간 35분)	4.8톤 (젓소)	20	운송기 여건에 따라 1두 추가
4차	12.28(수)		13:30~18:05 (4시간 35분)	4.9톤 (젓소)	19	운송기 여건에 따라 3두 추가

* 그 외 증모우(2두)는 '23.1월중 별도 운송 예정

□ **살아있는 동물의 항공운송관련 고려사항**

- 젓소 운송을 위해 젓소 체고, 호흡 등을 고려한 전용 훈증 나무 케이지 신규 제작
 - * 규격 가로 2,260*세로 2,960* 높이 1580mm
- 수송 시 젓소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수송열 예방 백신 접종
 - * (1차) 검역시행장 입식 2주전 개별 목장에서 접종, (2차) 검역시행장 입식일날 접종
-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의 환경제어시스템(ECS, Environment Control System)을 통해 항공기 내 온도, 습도 및 이산화탄소 농도를 젓소 권장수준으로 준수
 - * 젓소 권장수준: 온도 12.8~23.9℃(최대 29.4), 습도 40~60%(최대 80%), 이산화탄소 농도 0~3μmol/mol(최대 3μmol/mol)
- 항공기 운송 중 젓소는 절식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 전문 수의사 (서울우유 파주유우진료소 김영찬 수의사)가 동행
- 위생적 분노 처리 및 운송 스트레스를 완화를 위해 나무 케이지안에 건초를 깔아 운송

□ 개요

- 네팔 신들리지구 카말라마이시 소농 커뮤니티의 가축관리 역량강화와 디지털 및 그린 전환을 통한 낙농 생산성 향상
-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시범낙농마을을 선정하여, 지역 낙농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농의 생계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통합적 낙농 개발 사업 추진

* 농림축산개발부, 국립가축개량센터, 카말라마이 지방정부, 낙농개발공사, 낙농개발위원회 등 네팔 정부 및 헤퍼네팔과 지원 농가, 방식 등 세부 사업 내용 확정(헤퍼코리아, '21.1월~'22.11월)

□ 주요 활동

① 가축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마을별 여성 자조그룹을 대상으로 축사관리, 사료관리, 번식관리, 질병관리, 개체별 기록관리, 낙농활동의 그린 및 디지털 전환 등 항목별 현장 중심형 교육훈련을 진행
- 헤퍼네팔* 낙농 전문 직원의 상주 및 분야별 한국 전문가(인공수정, 사양관리, 개량분야 퇴직자 위주 구성)의 단기 파견 혼합을 통한 교육훈련 및 상시 모니터링

* 헤퍼네팔(Heifer International Nepal)은 1997년 네팔 정부에 비영리단체로 공식 등록되었으며, 지난 25년간 네팔 31개 지역 26만명의 가정을 대상으로 가축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

② 가축관리의 디지털화

- 젓소 개체별 식별번호(ID) 부여 후,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산유량, 사료량, 번식, 질병 등 데이터를 집계 및 모니터링 후 사양관리 활용

③ 기후친화적 낙농활동 지원

- 가정별 소규모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통해 가축분뇨를 부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잔여 바이오슬러리 자연비료를 활용하여 작물의 생산성을 증대하여 농가의 생계소득 창출에 기여

※ 네팔 농림축산개발부 및 국립가축개량센터(NLBO)는 공공부문의 체계적 유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후속 기술지원 및 인력파견을 요청

□ 헤퍼 인터내셔널 소개

- 1944년 설립된 헤퍼인터내셔널은 UN 차원에서 가축을 통한 국제구호·협력 사업을 최초로 실시한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국제개발 수행기관
- 2021년 기준 순자산 2억8700만 달러로 전 세계 20위 이내에 속한 INGO(International NGO)로 Charity Navigator 등 관련 평가기관으로부터 투명성과 책무성 분야 최상위 평가 획득
-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닌 잡는 법을 전수한다(Not a Cup, But a Cow)’는 철학 아래, 설립 이후 전 세계 총 3,980만 가구의 생계소득 창출을 지원(2021년 기준)

□ 전쟁 이후 한국의 농축산업 기틀 마련

-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국내 농가에 1952년부터 1976년까지 가축 3,200여 마리와 기술교육·훈련을 지원하고 “패싱 온 더 기프트*”를 통해 한국의 초기 농축산업 기반 마련에 기여(젓소, 황소, 돼지, 염소, 양, 벌꿀, 닭 등)
- * Passing on the Gift : 수혜자가 첫 번째 암컷 새끼와 전수받은 기술·지식을 이웃에 전하는 원칙을 통해, 수혜 가정의 자립과 지역공동체에 나눔의 연쇄효과가 발생하도록 고안된 헤퍼의 핵심사업 모델

□ 헤퍼코리아 주요 사업

- 헤퍼코리아는 2020년 9월 설립되어 ‘가축 한 마리로 시작하는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한국형 젓소 101마리를 네팔로 보내는 대규모 축산자원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 전개 중
- * 네팔에 우수한 품종의 한국형 젓소 지원, 신들리 축산농가 생산성 및 가치사슬 체계 향상을 위한 협력지원 사업, 동남아시아 헤퍼 지부와의 삼각협력사업을 통한 빈곤층 여성 역량강화 교육 지원, 차세대 국제개발협력 분야 인력 및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등

